



용천수에서 물놀이 즐기는 어린이들 열대야가 지속된 18일, 제주시 삼양동 용천수 노천탕을 찾은 어린이들이 튜브를 타며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 지역 용천수는 수온이 낮고 수질이 깨끗해 한여름 어린이들의 물놀이 장소로 인기가 높다. 강화만기자

도민여론 수렴·도의회 협의도 없이 제주자치도지사 임기 변경 논의

도, 5~7년 단임·6년 연임제 의견 정부에 제출
도의회 “도민·의회 모두 심각… 일정 변경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여론 수렴 과정은 물론 제주도의회의와의 협의도 없이 도지사 임기를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속개한 제362회 임시회 상임위 제5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중앙부처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2017~2022)’을 공개했다.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작성한 이 문서는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제도적 완성, 특별자치 추진 주요 정책 과제, 추진체계 개선 및 여건 조성, 지방분권국가 및 상생발전 기여를 위한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문서에서 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 지방정부형태와 계층구조 등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 등 법적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계층구조를 2계층(도·시·도·읍·면·동) 또는 3계층(도·시·읍·면·동, 도·읍·면·동·리·통)으로 하고, 도지사 임기는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로 추진하자는 내용 등도 담겼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지방정부형태와 계층구조, 도지사 임기 등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2019년 주민투표 및 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려는 추진 일정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길호 의원(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분권모델은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으로 완성이 되는데, 도지사 임기 변경 내용을 도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향후 계획을 보면 다

음달 중에 청와대에 보고되는데 정자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도 “주민투표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의정치(의회)를 통해 주요한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도민과 합의도 안된 얘기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느냐. 이견도민과 도의회를 심각하게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균 위원장(민주당, 제주시 애월읍) 역시 “8월이 청와대가 자치분권종합계획과 함께 지사 임기제나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문제까지 발표하면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발표 시기가 8월이라면 수정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결국 의회도 도민도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민구 의원(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과 좌남수 의원(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나용해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도지사 임기에 대한 부분은 제주분과위에서 하나의 예시로 든 것일 뿐”이라며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의회 의원들과도 충분히 의논하겠다”고 답했다.

표성준기자 sipyo@ihalla.com

제주 청정환경 관리체계 ‘역주행’

도, 환경보전국 개편안서 물관리과 신설
곳자알·오름 등 환경자산 부서는 되레 축소

제주의 지하수 관리와 보전을 위해서는 곳자알과 오름 등 환경자산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제주도가 관련 조직을 축소하면서 환경자산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현행 13개국 51개과에서 4개국 10개 과를 늘린 17개 국 61개 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지하수 보전을 위해 현재 환경자산관리과(자연환경보전 >수자원총괄 >수자원보전 >물산업 >곳자알생태관광담당)를 폐지하고 물정책과를 신설했다. 물정책과는 정책기능을 맡고 상하수도분부는 집행기능을 담당한다. 물정책과는 수자원총괄 >수자원보전 >물산업 >수질관리담당으로 돼 있다. 자연환경보전·제주국립공원추진팀·곳자알생태담당은 환경정책과로 편입시켰다.

제주자치도가 물정책과를 신설한 것은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빗물관리, 지하수 수질관리 등을 통해 향후

제주의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고 도민들이 물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하수 수량과 수질관리 부서 이원화로 지하수보전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물관리 체계가 단일 목적(재해·하천·상수도 등)에 따라 이뤄져 있어 홍수방지, 수자원 확보, 빗물관리 등을 통합해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하수 관리 업무 일원화로 앞으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행위, 오염원 등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하수 함양과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곳자알과 오름, 충산간 등 환경자산의 체계적 관리가 선행돼야 하지만 환경자산을 관리할 부서를 축소시키면서 ‘탁상행정’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환경자산의 가치보전과 함께

그 가치를 활용해 마을발전 주민소득과 일자리창출 등으로 연결해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이같은 사업추진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한 환경전문가는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환경자산이다. 현재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 제주를 위해서도 환경자산과를 신설해야 한다. 또 제주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도시계획과 GIS계 업무, 자연환경기반 관리를 위한 담당계 신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는 연평균 2061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리는데 이 중 55%는 증발산작용과 직접유출 과정을 통해 대기와 바다로 손실되어 버리고 나머지 45%(16억 7600만㎡)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지하수 함양률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곳자알과 오름이다. 이곳이 망가지면 지하수 보전은 불가능하다. 환경자산의 특성에 맞는 관리를 위해 곳자알, 오름, 충산간 등 자산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태고의 신비 간직한 숲’ 열흘 간 개방 28일부터 거문오름서 ‘2018 국제트레킹’ 오전 8시~오후 1시 용암길·진물길 개방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주최하고 거문오름국제트레킹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이 오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열흘간 세계 자연유산 거문오름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은 국내 생태관광을 대표하는 트레킹 행사로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사전 예약 없이 거문오름을 무료로 탐방할 수 있으며 평소 개방되지 않던 용암길과 진물길도 개방된다. 탐방시간은 자연유산 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제한되며 탐방에 앞서 탐방안내소에서 반드시 사전 안내와 출입증

을 받아야 한다.

거문오름 트레킹 코스는 분화구 내부와 정상부 능선을 따르는 태극길(10km)과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흘러내려간 구간인 용암길(5km), 그리고 뽕뽕굴부터 흐린내생태공원까지의 진물길(6km) 등 총 3곳이다.

탐방객을 위해 트레킹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된다. 셔틀버스는 용암길 최종목적지인 다자연에서 흐린내생태공원을 지나 (전)탐방안내소까지 운행되며, 평일은 30분마다, 주말은 20분마다 배차될 예정이다.

다양한 주말공연도 마련된다. 올해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은 세계화를 테마

로 29일 우리의 소리 무형문화재 공연과 터키 전통 마블링 공연이, 내달 4일엔 남미전통음악 등을 선보인다. 다음달 5일엔 초대가수 박해경의 특별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밖에 비누만들기 체험, 천연염색 체험, 목공예 등 친환경 관련 체험부스가 운영되며, 거문오름 블랙푸드 사업단의 육가공 및 오메기떡, 선술리 특산물 백도라지분말 시음 등 세계자연유산지구 음식 체험도 마련된다.

제주세계자연유산의 다양한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 ‘제주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국제트레킹’에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총 5명을 선정, 20만원의 상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행사 개막식은 오는 28일 오전 9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특별무대에서 진행되며, 세계자연유산 자매결연지인 일본 아오모리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거문오름국제트레킹위원회 064-750-2543. 채해원기자

기획/제주의 미래, 농촌 융·복합산업에서 찾는다... 7면

제주네비게이션 AS센터
블랙박스 점검센터
(본죽사거리에서 바닷가 방향 세게로마트 내)

최근 구입하신 **블랙박스 제품**에 대해 **결함**을 느끼신 분들은 **저희 매장을 방문**하시면 **A/S** 받으시기 바랍니다.

☎ 711-6544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 **등재 11주년 기념**

Trekking Festival

2018 세계자연유산제주

제11회 기문오름

국제트레킹

- **기간** : 2018. 7. 28(토) ~ 8. 6(일) 10일간
- **장소** : 세계자연유산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거문오름
- **문의** :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국제트레킹위원회 사무국 (한라일보사) T.064)750-2543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국제트레킹위원회 (위원장: 강만생 한라일보사 대표이사)
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참가기관 제주관광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조천읍사무소 / 조천읍이정민협의회 / 조천읍주민자치위원회 / 제주세계자연유산지구마을협의회 / 제주도시자연관 / 선술리 / 선술리청·부녀회 / 한라일보사

행사기간 주요공연

<p>07. 28(토)</p> <p>07:00 기원제 08:00 풍물 길놀이 공연 08:30 거문오름 풍물단 09:00 개막식 09:30 환경면 난타동아리 10:00 선인봉과 풍물패 10:30 마임 공연 '백백이' 11:00 소프라노 색소폰 팬플룻 연주</p>	<p>08. 04(토)</p> <p>10:30 남미 전통 음악 '리파열' 11:00 합창단 공연 '따앗'</p>
<p>07. 29(일)</p> <p>08:30 선술리노인회 건강백세 09:30 무형문화재 김대규님 소리 및 그림 10:30 터키 전통 마블링 '에브루' 11:30 소프라노 색소폰 팬플룻 연주</p>	<p>08. 05(일)</p> <p>08:30 줄바덴스 09:00 라인댄스 09:30 난타공연 10:00 퍼포먼스 그룹 WIN WIN 댄스팀(구. MAX팀) 10:30 특별 공연 '가수 박해경' 11:00 오카리나 연주 서귀포 오카리나 앙상블</p>

※ 행사기간 용암길코스 개방 및 진물길 코스 한시적 개방